

억압의 정치와 기독교 문학

Die Rolle der christlichen Literatur
unter dem Nationalsozialismus

국가사회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기독교 문학의 좌소와 사명

추태화

- I. 시작하는 말
- II. 나치 이데올로기 하의 기독교 작가
- III. 기독교 문학의 의미 구조
- IV. 기독교 문학의 사명
- V. 맺는 말



추태화,

인천 생(1955), 중동고, 단국대 국문학과를 거쳐 독일 유학을 떠나다 (1981). 뮌헨 한독교회에서 다시 은혜 받고 10년 가까운 방황을 청산 (1982), 독일을 떠날 때까지(1993, 8월) 동교회 서리집사로 봉사(예배 동시통역은 계속, 성가대, 주일학교는 단기). 동교회 안재은 담임목사님(재독선교사, 「국경 없는 메아리」의 저자)의 동구권 선교사역에 동참, 헝가리, 유고, 체코슬라바키아, 폴란드 등지의 교회를 방문하다. 1992년 9월 슬라바키아 코마로노시 칼빈신학교에 평신도 선교사(독일어 교사)로 파송받아 단기 사역하다. 그간(1984-현재) 주의 은혜로 아내와 두 아들을 얻다.

독일 뮌헨대학 독문학 석사(1987), 아우그스부르크대학 독문학 박사 (1993, 7월, 제목: Nationalsozialismus und Verantwortung der christlichen Literatur: Zur Poetologie des Zwischen-den-Zeilen-Schreibens der christlichen Dichter in der Inneren Emigration 1933-1945). “문학의 속죄”를 위한 기도제목을 갖게 되어 기독교 문학 연구에 뜻을 두다. 문학과 신학, 문학과 종교, 독일 기독교 문학사, 기독교 문예비평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ZUSAMMENFASSUNG:

"Die Verantwortung der christlichen Literatur in der Zeit des Nationalsozialismus." Mit diesem Titel wird versucht, Rolle und Funktion der christlichen Literatur in der Zeit 1933 - 1945 ins Licht zu bringen. Diese Dichtung war i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ein Sonderphänomen, das man nicht einfach behandeln darf, daß sie aus dem Glauben entstand. Die komplexen Themenzusammenhänge Glauben - Nazi-Regime - Dichtung sind hiermit in die Werke untrennbar hineingeschmolzen, so daß die christliche Literatur ihre Stellung in der zeitgenössischen Literatur festhielt. W. Bergengruen, J. Klepper, R. Schneider und R. A. Schröder sind die Männer, die unter der Nazi-Diktatur litten und zugleich durch dichterische Tätigkeit ihren unversöhnbaren Geist gegenüber dem NS zeigten.

Ihre dichterische Sendung fanden die Dichter darin, daß sie die Wahrheit schreiben und die Leser trösten. Ihre Werke beinhalten sowohl zeitgeschicht-relevantes als auch theologisches. Gedankengut. Daraus ergibt sich, daß die christliche Literatur eine Schlüsselposition für die Wahrnehmung der Zeit hat. Ihr Geist, den die religiöse Dichtung erfahren ließ, steht für den christlichen Glauben und wider die Propaganda des NS, die falsche Glaubenslehre erzeugte. Die christliche Literatur spielt eine große Rolle, für die Dichter sich selbst ein Versuch der Daseinsüberwindung zu sein und den Lesern seelsorgerliche Hilfeleistung(hier ist in der psychotherapeutischen Konzeption "christian

counselling through poetry" gemeint) zu geben. Im Verhältnis zwischen den Dichtern und Lesern existierte dadurch eine heimliche Kommunikation, die an die Nazi-Zensur unverletzt vorbeiging. Die christliche Literatur trägt ihre Verantwortung gegenüber der Zeit weiterhin, Bewahrungsapparat vor der NS-Manipulation zu sein und geistige Kontinuität zu bilden.

Für diese Stellungnahme wurden die theologischen Elemente der Werke in der ersten Reihe gesammelt und interpretiert. Daraus resultiert, daß dogmatische Lehre wie Theo-Logie Wissenschaft(über Gott), Christologie, Eschatologie und Ekklesiologie und praktische Lehre wie Ethik und Bewältigung der Existenz durch den Glaubensansatz ins Werk durchdringen. Die christliche Literatur ist schließlich nicht nur die Dichtung, die aus dem ästhetischen Gefüge besteht. Sie übersteigt die dichterische Dimension, indem sie dem Menschen Lebenshilfe bzw. Glaubenshilfe zu spenden weiß.

I. 시작하는 말

국가사회주의 시대의 기독교 문학을 논하는 글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두 개념이 아직도 혼란과 논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 Nationalsozialismus, 일명 나치주의, 이하 우리 귀에 익은 “나치”라는 말로 축약하여 사용함)는 현재까지도 역사 연구 면에서만이 아니라 과거 극복이라는 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기독교 문학이란 용어도 개념 성립의 가능성과 범위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란의 현장을 피하여 작가가 신앙을 토대로 하여 쓴 문학작품이 나치시대 극복이라는 면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다했는가 하는 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나치시대의 기독교 문학은 독일 문학사에서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¹⁾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 역사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은 지대하여 독일문화와 기독교는 게르만 민족이 처음 로마카톨릭으로 기독교화 된 이후 정치, 종교, 문화, 사회, 심지어는 경제윤리에까지 영향을 미쳐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문학사에서도 기독교의 영향은 커서 문학사 발전에 사상, 소재, 주제, 비판 등의 면에서 동참하여 왔다. 기독교 문학은 카롤링어 왕조, 중세, 휴머니즘, 르네상스, 종교개혁, 바로크, 경건주의, 고전-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18세기의 계몽사상, 자연과학, 그 뒤를 이은 19세기 유물론적 세계관의 등장으로 인하여 종교비판이라는 영역에 자리를 내주었던 기독교 사상과 문학은 20세기의 급진적인 니힐리즘(예: Nietzsche), 정신분석학(예: Freud), 자아중심적 자율성(Autonomie)의 영향으로 비판의 대상

1) 여기에 대한 독문학사적인 지적은 아래 책을 참고: B. Bosch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Grundzügen), A. Weber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ihrer Zeit), W. Urbanek (Deutsche Literatur. Das 19. und 20. Jahrhundert).

이 되었다. 표현주의 시대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도 기독교적인 혼란적 문학에 보이나 그것은 소재주의, 세속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사이비 기독교 문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고에 거론되는 기독교 문학의 기준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소재의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기독교적인 내용을 얼마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가 하는 판단으로 선별되어진다. 이런 의미의 기독교 문학이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 바로 나치시대이다. 더구나 1933 - 1945년 사이의 독일은 히틀러의 집권 하에서 상상을 초월한 사탄적인 인간말살이 벌어졌던 독재정권의 시기였으며, 모든 메스컴은 나치의 통제 하에 들어가서 검열 없이는 한 권의 책도 마음대로 출판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기독교 문학이 낸 책들은 검열을 통과할만큼 빈약한 사상의 어용문학이었는가? 라는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본고가 관심을 두는 4명의 작가는 - 베르겐그뤼른(Werner Bergengruen), 클레퍼(Jochen Klepper), 쉬나이더(Reinhold Schneider), 쉬뢰더(Rudolf A. Schröder) - 모두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외망명을 거부하고 나치 독재를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작품으로 저항하며, 독자를 위로하고, 시대의 진실을 行間의 作法(Zwischen-den-Zeilen-Schreiben)으로 작품활동을 영위해 나갔다. 이들은 독일문학사에서 “내부 망명”(Innere Emigration)²⁾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작가들이다.

2) 이 개념은 해외 망명(Exil)을 간 작가들에 대응하여 당시 독일에 남아 있던 작가들에게 붙인 명칭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이 작가군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그들의 작품이 나치 치하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나치사상에 동조하였다는 비판이다. “내부 망명”은 정치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문학적인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Vgl. O. Mann (Hrsg): Christli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Beiträge zur europäischen Literatur, Bern/München 1968; H.R. Klieneberger: The christian writers of the inner emigration, The Hague/Paris 1968; H. V. Arnim: Christliche Gestalten neuer deutscher Dichtung, Berlin 1961; Ch.W. Hoffmann: Opposition poetry in Nazi Germany, Berkeley/LA 1962.

이 논고는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던 이 시대의 기독교 문학이 이론 가치를 밝혀내고, 신앙으로 이론 문학작품이 인간 파괴와 인권 유린이 자행되던 시대에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내용을 인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나치 이데올로기 하의 기독교작가

1. 나치의 신화와 이데올로기

나치주의의 발단에 대하여서는 당시의 유럽 역사와 국가간의 권력 긴장을 고찰해보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는 기독교 문학이 대항하려고 하였던 종교면에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933년 1월 30일(권력장악일, Machtergreifung)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뒤를 이어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을 계승한 히틀러 주도 하의 독일 국가사회주의노동당(NSDAP: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은 그 정치강령 중의 하나로 신화(神話, Mythos)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모든 체제, 사상,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신화의 구조로 이루어진 이데올로기 속에서 통제되어 독일 역사에 다시 없는 전제주의 정권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 사상을 뒷받침하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Mein Kampf)과 로젠베르크의 “20세기의 신화”(Der Mythos des 20. Jahrhunderts)는 당시의 필독서로 추천되었고, “나의 투쟁”은 나치당으로부터 “당의 성서(黨의 聖書)”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다. 이 책들이 이론의 기미가 되어 주장한 “신화”의 구성에는 여러가지 상이한 출처가 있다. 그 중에서 인도게르만어권에 속해 있던 전설적인 아리안 족과 유럽사에서 독일을 이루었던 게르만족에 대한 문화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 이를 토대로 신화, 설화, 영웅담, 민속종교 등에 대한 지식이 나치의 이상형(Idealtypus)을 이루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공헌을 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 해석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독일이 당한 현재의 비관적인 역사 현실은 독일인의 전통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라는 이론이었는데 그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유대인이 세계적인 전복의 기회(Weltjudentum)를 틈타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열등민족이어서 그들의 피가 섞인 독일 민족이 열등하게 되어간다는 이론이었다. 여기에 사회 다윈니즘(Sozialdarwinismus)의 사상이 결합되어 우등한 민족은 열등한 민족을 지배해야 하며, 지배권은 오히려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화의 최후의 종착역은 전체적인 독일 제국 건설과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아리안족-게르만족으로 이어지는 신화 복귀운동은 동조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은 제 1 속죄양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독교계는 저항과 야합이라는 두 세계로 분열하였다. 기독교의 신학이론, 신앙고백과 예배의 요소는 이 신화에서 유출된 내용으로 해석되거나 변형이 가해졌으며, 교회정치구조에 간섭을 해 주교 및 요직에는 나치 옹호자들로 대체하였다. 개신교는 1935년에 어용 주교인 Ludwig Müller를 역시 어용 기독교단체인 “독일제국 기독교인”(Deutsche Christen)의 주교로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카톨릭은 히틀러가 내세운 극렬한 대공산주의정책으로 인하여 나치주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카톨릭 선교에 도움을 주는 정당으로 오해하였다. 1937년에 이르러 교황 Pius 11세의 “타는 듯한 근심으로”(Mit brennenden Sorge)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지역적인 항의만이 가능했었다.

2. 기독교 신앙의 말살정책

나치주의자는 유대인이 독일 역사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을 보호하는 길은 유대인의 계획을 파괴하는 것이 최대의 방

법이라고 선전하였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인정하는 기독교도 독일 문화에 이득을 준 것이 없고 오히려 민족문화 건립에 방해요소로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친나치파를 앞세워 제3제국 건설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독일제국 기독교”와 “실용적 기독교”(Positives Christentum)라는 운동을 실시하였다. 나치주의자들과 나치주의에 동조하였던 어용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엄청났었다. 예를 들면, 구약은 유대인의 산물이므로 기독교에서 구약을 추방해야 한다. 성경은 아리안족의 유산물이다.³⁾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아리안족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나라 건설에 실패하였지만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독일제국을 건설할 것이다.⁴⁾ 히틀러는 신(神)이 독일 민족에게 보낸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여 겉으로는 기독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 융화정책을 편 것처럼 선전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을 그들의 미래제국 건설에서 추방, 말살하려 하였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Blut Christi)에 대항하여 신앙의 핵심을 그들이 만든 피의 신화(Blut-Mythos)로 회색시키려고 하였다. 게르만족의 피는 우수한 종족의 유전이 흐른다고 신성화시켜 드디어는 “피의 종교”(Religion des Blutes)⁵⁾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국민에게 기독교 교의 내용에 관한 혼란을 야기시켰다. 또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에 대응하는 하켄크라이즈(Hakenkreuz)를 개발하여 미래제국을 위한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기독교적인 구원, 죽음의 의미를 모두 나치화 하여 나치를 위한 죽음을 극단적으로 미화⁶⁾하였으

3) Vgl. Enthält die Bibel arisches Weistum? In: Das Weistum des Volkes. Schriften über Rasse, Religion und Volkstum, hrsg. von H. Reichstein, Heft 3. Berlin 1935.

4) Vgl. W. Hofer(Hsrg): Der Nationalsozialismus. Dokumente 1933-1945. Frankfurt/M. 1960, S.128. 이 선전 내용은 당시 국민학교에서 국어 교재로 사용되었다.

5) Vgl. Religion des Blutes, in: Das Weistum des Volkes. aaO., Heft 4.

6) 나치의 죽음에 대한 선전은 조국과 민족의 지도자 히틀러를 위할 때 의미있는 것이

며 나치를 위한 충성만이 구원을 준다는 식의 사상을 선전하였다. 또한 대강절,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과 같은 기독교의 절기를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맞게 뜯어고쳐서 예를 들면 성탄절에 다음과 같은 선전을 일삼았다. “..... 성탄절에 새 독일민족의 창조자인 히틀러에게 바칠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입니다. 감사와 서원으로 우리의 삶을 그의 손에 바칩니다.”⁷⁾

3. 기독교 작가의 위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과 세계관의 면에서 동조할 수 없었던 기독교 작가들은 망명한 작가들에 비교할 수 없는 극악한 실존에 부딪히게 되었다. 해외 망명작가들은 조국을 떠난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작가적인 생명인 창작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적어도 히틀러를 공공연히 비판할 수 있는 문필의 자유는 누렸다. 그러나 망명을 거부하고 자국에 남아 있기를 원했던 내부 망명작가들 중의 기독교 작가들은 이중적인 고통에 떨어졌다. 그것은 신앙과 사상의 양면에서였다. 이들은 검열과 통제에 걸려 마음대로 작품을 쓰지도 못했고, 출판하지도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공식에 출입을 금지당하는 어려움을 당해야 했다.

아래에 거론되는 사례는 이들이 어떠한 작가의 실존(Dichterische Existenz)을 겪었어야 했는지 살펴봄으로서 나치주의에 동조할 수 없

며 그것은 영웅적이며 순교라는 망상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자면 친위대의 행진가에 이런 내용이 흔히 보인다. “조국 독일의 대지를 위하여 / 히틀러를 위하여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자유, 정의, 빵을 원한다 / 독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죽음으로 돌진한다.” Vgl. “Freiheitshymne an Adolf Hitler”, “Hakenkreuzstandarte”, in: Heil Hitler Dir! Kampf- und Trutzlieder der erwachten Nation, 4.Aufl. Leipzig.

7) G. Rühle: Das Dritte Reich. Dokumentarische Darstellung des Aufbruchs der Nation, Berlin 1934, S.399.

었던 신앙인들이 쓴, 나치의 사상과 시대를 극복하고자 했던 작품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되고자 한다.

1) 박해, 낙향, 고립된 일상생활: 나치운동은 집단대중운동(Massenbewegung)이며 따라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독교 작가들은 1933년 당시 모두 북부 독일의 대도시에서 거주하여 살았었다. 베르겐그뤼프, 클레퍼는 베를린에 거주하였고, 쉬나이더는 베를린과 포츠담에 거주하였다. 쉬뢰더는 브레멘에서 그의 작가생활을 해오다가 나치집단의 어지러운 사회운동을 피하여 落鄕하게 된다. 베를린은 나치의 정권이 있던 당시 독일의 수도로서 베르겐그뤼프는 1936년 독일 최남부 연방인 바이에른의 뮌헨시 근교로, 쉬뢰더는 1935년에 역시 바이에른의 베르겐이라는 작은 시골마을로, 쉬나이더는 1938년에 비교적 나치의 소음이 덜했던 바덴-뷔르템베르크 연방의 후라이부르크 근교로 낙향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작가로서의 공적인 직위를 박탈당한 채 개인적인 친분관계만을 그 생존의 장으로 소유해야 했다. 나치는 베르겐그뤼프를 “정치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클레퍼를 “민족의 정신적이며 문화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국작가협회(Reichsschrifttumskammer)에서 제적하였다. 기독교 작가들은 자유 문필가로 소속되어 있던 신문이나 잡지사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는데 이는 이 작가들의 공적인 활동을 막으려는 나치의 계획에 의해서였다.⁸⁾ 클레퍼는 그의 독실한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1942년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부인과 함께 자살하였다. 유대인이 강제수용소로 이송되면 가스실에서 죽는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1942년에 클레퍼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다. 끝내 강제소환장을 손에 든 유대인 아내와 그녀의 딸을 놓고 기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그는 “숨어계시는 하나님”(deus

8) 베르겐그뤼프는 “프랑크푸르트 신문사”, 클레퍼는 “베르린방송”과 “울스타인 출판사”, 쉬나이더는 “Deutsche Rundschau”, 쉬뢰더는 “Neue Rundschau”에서 각각 해임당했다. 또한 이 기관들은 1942-1944년 사이에 모두 강제폐간을 당했다.

absconditus)⁹⁾이라는 신학의 한 명제를 확인하고 “오시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먼저 간다”는 대강절(Advent)의 의미를 현실에 옮긴 것이다. 이 문제는 흑백논리로서 비판할 수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시대 체험의 표현으로서의 개종: 기독교 작가의 신앙은 여기의 예에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클레퍼와 쉬뢰더의 경우에서와 같이 집안의 신앙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그것이다. 클레퍼는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고 자신도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증도에 예술에 경도되어 신학을 완전히 마치는 못했으나 목회의 길이나 예술의 길이나 라는 갈림길에서 고민한 흔적이 그로 하여금 기독교 문학론의 길을 여는 기반이 되었다. 그의 신앙은 쉘레지엔 지방에 남아 있던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조상에 힘입은 바 크다. 쉬뢰더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교회에서 설립된 선교단체에서 일하였는데, 그는 오랫동안 20세기 초의 예술운동 중의 하나인 인상주의(Impressionismus)에 심취되어 건축, 고전문학 등, 신앙과 별개의 세계에서 살아오다 1차 세계대전의 잔학한 결과와 인간 상실의 문화에 회의를 지나 다시 신앙을 붙들게 되었다. 그의 회개는 1919년으로 알려진다.

이제 거론되는 개종(改宗)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지나서 정치적 행동으로까지 여겨지는 면이 있다. 나치시대에 공공연히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반나치주의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여겨졌다. 나치가 주장하는 신앙의 핵심에는 언제나 신화적인 제국건설과 히틀러가 중심이 되어 왔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나치사상에 찬성을 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집권자를 반대한다는 의미 표명으로 해석되어졌다. 베르겐그룬

9) 편집인 주: 이 용어는 ‘계시하시는 하나님(deus rerelatus)’이라는 개념과 함께 신정통주의 신학자 Karl Barth가 변증법적 신학을 전개하면서 쓰던 용어이다.

의 고향도시인 리가(발칸)로서 이 곳에도 오래 전부터 카톨릭과 루터교의 영향이 있던 지역이었다. 그는 정신적으로 카톨릭과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였는데¹⁰⁾ 나치주의가 한창 극성을 부리던 1936년 베를린에서 개종, 정치적 박해를 피하여 남부도시 뮌헨으로 피신을 오게 된다. 쉬나이더의 아버지는 개신교 교인이었고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아 카톨릭적인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종교적인 분위기에 있으면서도 니이체의 허무주의(Nihilismus)와 우나무노의 비극적인 세계관(Tragik)에 빠져 있던 그는 1938년 낙향을 하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회개, 세례를 받게 된다.

3) 장르론: 이 시대의 문학적 출구는 기독교 작가들에게 거의 봉쇄되었다. 또한 그들의 대표작들이 나치에 의해 1937-1942년 사이에 금지되었다. 특이한 것은 내부 망명작가들이 침묵의 길을 가는데 기독교 작가들은 그들의 장르의 범위를 바꾸어서 계속 창작을 했다는 점이다. 역사소설에서는 알레고리라는 방법을 써서 작품을 내놓았는데 베르겐그뤼텐의 「독재자와 심판」(Das Großtyrann und das Gericht),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Am Himmel wie auf Erden), 클레퍼의 「아버지」(Der Vater), 쉬나이더의 「칼 5세 앞의 라스 카자스」(Las Casas vor Karl V.)는 금지되었다.

시에서는 모두 소네트(Sonett)라는 형식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에 는 나치의 사상에 항거하는 의도가 깊이 배어 있었다.¹¹⁾ 당시 소네트는 게르만적 전통의 시형식이 아니라 하여 배척하던 풍토가 있었지만 기독교 작가들은 이를 유럽의 전통시 양식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였

10) 그는 교부 터툴리안의 표현인 *anima naturaliter christiana*(자연적인 기독교적 성향)를 인용하여 자신이 *anima naturaliter catholica* 라고 말했다. Vgl. W. Bergengruen: Dichtergehäuse, München 1966, S.347.

11) Vgl. Th. Ziolkowski: Form als Protest, in: R. Grimm und J. Hermand (Hrsg.): Exil und Innere Emigration I. Frankfurt/M. 1972.

다. 그 다음으로 신앙적인 글들을 발표하여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클레퍼와 쉬뢰더는 찬송가 작시(Kirchenlied-Dichtung)를 하여 당시의 그의 시들이 현재에도 독일 개신교 찬송가집에 실려 있다.

III. 기독교 문학의 의미 구조

위에서 기독교 작가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정신사적인 배경을 더듬어 보았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시대 배경이 작품에 끼치는 영향관계가 얼마나 깊으며, 나치시대라는 토양에서 쓰여진 작품에 기독교 신앙의 요소들이 어떻게 형상화되었으며, 그러한 내용이 동시대의 독자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함으로 기독교 문학의 사명에 좀더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종말론

나치주의 시대관은 종말론(Eschatologie)의 역사관에 깊이 뿌리 박고 있었다. 그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기독교의 사상 중 신국(神國, Reich Gottes) 개념이 세속화되어 받아들여진 결과였는데 나치가 주장하였던 “제3제국”(Das Dritte Reich)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이러한 역사관을 반영하였다. 이는 나치주의가 세워야 할 아리안-게르만족의 민족국가는 세계역사를 새롭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자연히 과장되어졌다. 어용신학은 역사는 제3제국이 극복해야 할 과거와 미래의 투쟁이며, 미래를 지향하는 제3제국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현재 역사의 초석이라고 주장하였다. 미래에 건설될 신(新)독일을 위하여서는 신학과 신화, 종말론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¹²⁾ 도래하는 제국을 기대

12) Vgl. H.-J. Sonne: Die politische Theologie der Deutschen Christen,

하며 모든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은 종말론의 부정적인 적용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대하여 Th. Haecker는 이렇게 비판한다. “그들(나치 주의자: 필자주)은 마귀나 우상에 대해서도 하나님 또는 전능자라고 부른다.”¹³⁾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하여 당대의 신학자 본회퍼는 히틀러와 나치의 모습에서 적그리스도를 발견하였고 그러한 신학적인 역사비판은 과격하였던 본회퍼 뿐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신학 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¹⁴⁾

나치주의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에 대항하여 기독교 작가들은 종말론 적인 시대 체험을 그들의 작품 속에 표현하였다. 그것은 성서적인 사상 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시대비판이었다.

.....

궁홀 없는 불안 속에
우리는 죽은 듯 갇혀 있었다.
암흑의 뗏들은 아직도 구르는가
아니면 그것마저 삭아버렸는가?

아직도 구르는 소리를 우리는 듣는다,
밤마다 죽음의 시제는 초를 다투는데-
저 소리로부터 구원될 때까지
섬광의 불꽃이 내려쬘었네.¹⁵⁾

Göttingen 1982.

13) Th. Haecker: Tag- und Nachtbücher, 1.Aufl. München 1975, S.28.

14) 예를 들자면 Paul Schütz는 1934년 금지된 그의 신학서에서 다음과 같이 시대상을 거론하였다. “현재 ‘하나님의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기독교 정치라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Vgl. P. Schütz: Das Mysterium der Geschichte. Von der Anwesenheit des Heilenden in der Zeit, Hamburg 1963, S.84.

15) W. Bergengruen: Figur und Schatten, München 1958, S.151.19S.151.

나치의 광포한 정치가 불러일으킨 불안 속에서 작가의 체험은 성서의 묵시록으로 돌아간다. 쉬나이더는 자신의 시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

하늘의 천군이 불을 발하며 저기 있네
가공할 싸움이 여기 저기에 시작되네.¹⁶⁾

베르겐그루엔의 소설 속에서도 이러한 세기 종말에 관한 요소가 등장한다. 이는 소설의 구성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실존적이며 심리적인 요소로서 불안과 공포이며 그 결과로 인간관계의 혼란과 불신임이 극도에 달한다. 작가는 또다른 시에서 시대를 말한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 매일의 양식이란 오직 거짓말 뿐이었다.”¹⁷⁾

종말론의 유형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는 적그리스도로서 이 시대에는 당연히 민족의 구원자로 자처하였던 히틀러이다. 작가들은 신학자들과 같이 그를 악령 또는 사탄으로 표현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진실을 알도록 전달하였다.

그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장할 것이다,
그는 주님의 하신 거룩한 말씀도 할 것이다.

.....

그러나 사탄이 그 속에서 말하는 줄 아무도 몰랐지
사탄의 전을 오히려 승양하였네.¹⁸⁾

(“Apokalyptische Schwüle”).

16) R. Schneider: Lyrik, GW.Bd.5, Frankfurt/M. 1981, S.148. (“Apokalypse”).

17) W. Bergengruen: Figur und Schatten, S.139-140. (“Die Lüge”).

그 옛날 저주와 같이 악령의 군대가
스러지고 사탄이 부리는 마술의 언어도
싸움 속에서 승리의 마차로부터 사라져갔다.¹⁸⁾

이제 작가들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한다. 이 승전보는 천사가 가지고 온다. 시인의 눈에 환상처럼 이 장면이 보인다. 독자들은 최후의 심판과 같은 시대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도록 고무당한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최후까지 견딜 수 있는 자라는 격려가 이 시들이 주는 내면의 소리였다.

.....

주님, 당신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불꽃과 같은 영광 속에 시간을 부수실 겁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 속에서 심판을 예비하실 겁니다.²⁰⁾

2. 기독교론

나치주의 권력 구조의 최상부에는 법이나 국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도자(Der Führer)라는 명분의 인물 히틀러가 있어서 모든 행정, 명령, 결정, 법을 장악하였다. 그는 게르만 민족신화의 원형(原型) 연구를 등에 업고 영웅 중의 영웅으로 대우 받았고, 어용 신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하였다. 독일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올 카리스마적인 집권자로 묘사된 그는 국민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

18) R. Schneider: Lyrik, S.26. ("Der Antichrist. Nach Luca Signorelli").

19) Ebd., S.22. ("Aachen. Nach Rethel").

20) W. Bergengruen: Der ewige Kaiser, 2.Aufl. Graz 1951, S.12. ("Der ewige Kaiser").

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작가들은 나치주의의 허구성을 내보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기독교론(Christologie)은 그 쟁점 중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나치는 지도자인 히틀러에다 성경적인 언어를 빌어 민족의 예언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이었다. 즉 성경적인 메시아像에 혼합종교적인 요소(Synkretismus)와 불경건함을 가하여 신성모독(Blasphemie)을 자행하게 되었다. 작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서 나치에 의한 메시아상에 대한 세속화와 불경건화에 대항하였다.

클레퍼는 그의 長詩 “왕”(Der König)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주님, 우리로 다시 한 왕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왕을 잊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당신의 질서를 이루어야 할지.²¹⁾

쉬뢰더의 시어도 하나의 기도의 언어가 되어갔다. 그의 시적 자아(Das lyrische Ich)는 기도자였고 그의 인식의 중심에는 메시아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었다.

거룩하신 주여, 도우소서, 우리는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10명의 의인이 남아 있습니까?

.....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합니다.

.....

도우소서, 구원자시여, 도와주소서, 살인자들은 깨어나고;
우리들은 힘들고 무기력합니다.

21) J. Klepper: Ziel der Zeit, 3.veränderte Aufl. Bielefeld 1980, S.39. (“Der König”).

.....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²²⁾

이러한 시인의 시의 고백적인 변화는 베르겐그뤼엔에게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것은 기독교 작가들의 공통적인 성서적 상상력의 결과였다.

.....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황제이신 당신이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안보하신 시간에 보호자로 계신 것을.²³⁾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시적 상상력의 세계는 그들의 실존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에 수긍한다. 고통과 그 극복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제시되어 있는데 P. Tillich는 이를 카이로스(Kairos)라 불렀다.
24)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론적인 현재를 의미한다.

천 년의 세기는 곧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

아직 한 번도 인간인 우리에게 시간을 소유케 않으셨지만
당신의 시각은 이제도 불확실합니다.

.....

하나님, 당신의 정하신 질서로부터 우리로 떠나지 않게 하옵소

22) R. A. Schröder: Geistliche Gedichte, GW.Bd.1,
Berlin/Frankfurt/M. 1952, S.905. ("Diese Drei").

23) W. Bergengruen: Der ewige Kaiser, S.40. ("Vocatus Ecclesiae").

24) Vgl. P. Tillich: Der Widerstreit vom Raum und Zeit. Schriften zur
Geschichtsphilosophie, GW.Bd.VI, Stuttgart 1963, S.25.

서.

우리의 시간으로 돌아오소서.

늦은 저녁이라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결정의 시각은 우리에게서 아직도 맴돕니다.²⁵⁾

위에 열거한 예를 통하여 인식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의 詩語들이 정치적 항거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씌어진 경향문학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신앙고백 외에도 신화화되는 지도자상에 대한 항거를 인식하는 저항인 것이다. 시인들이 기독교에 근거한 시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심판이다. 역사의 주관자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부정이 판가름 받게 될 것이다. 클레퍼의 시는 계속해서 “이 세계의 참을 수 없는 혼란”, “세계의 죄”, “시간의 완성”, “평화와 기쁨”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신앙의 내용들이 시대의 혼란을 지나 문학적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3. 교회론

클레퍼의 일기를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용화된 나치독일의 교회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개신교회를 통탄해 한다. 하나님의 멀리 계심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²⁶⁾ 그가 말한 개신교회라는 것은 나치사상에 동조하였던 독일제국교회를 말한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교회는 “초대교회의 핵심”²⁷⁾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였다. 베르겐그룬은 그의 시

25) J. Klepper: Ziel der Zeit, S.40-42. (“Der König”).

26) J. Klepper: Unter dem Schatten deiner Flügel, 2.Aufl. München 1983, S.46.

27) Ebd.

에서 이렇게 교회론(Ekklesiologie)에 관한 표현을 드러내 보인다.

.....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신비한 몸으로 골라서 당신께 연합시킨 것을

.....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황제이신 당신이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안보하신 시간에 보호자로 계신 것을.²⁸⁾

기독교 작가들이 시대 속에서 문학으로 표현한 교회에의 생각은 신학 어느 분과의 교회론을 편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의 내면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²⁹⁾의 문학적인 체험이었다. 이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소망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독자는 시대가 던지는 공포에 대항하여 연합된 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항거하는 힘을 얻게 된다. 나치는 민족의 연합성을 유난히 강조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독일 문화정치의 전체성”이었고 그래서 나치주의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모든 문화생활면에서 모든 국민을 계획적이며 획일성 있게 교육하는 것을 목적했다.³⁰⁾ 이러한 민족연합전선에 대한 기독교 작가의 교회론은 저항의식이 내포된 시적 항거였다.

기독교 작가의 작품 속에 표현된 교회론에는 이에서 더 발전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바른 교회”와 “그른 교회”를 구별해 내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시대를 주관하는 신학사상이 그른 교회를

28) W. Bergengruen: Der ewige Kaiser, S.40. (“Vocatus Ecclesiae”).

29) 편집인 주: 이 용어는 히틀러에 대항했던 교백교회의 저항신학자인 Dietrich Bonhoeffer의 책명이기도 하다.

30) Vgl. Das Dritte Reich, S.206.

통하여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바른 교회”는 계속해서 우주적인 교회로 확산되어졌다. 시대 속에 나타나는 세상의 어지러운 정치와 문화의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성령 및 영적 성격(pneumatologischer und spiritueller Charakter)에로의 연결이었다. 나치사상에 동조할 수 없는 신앙인들은 하나의 영적 공동체, 즉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시각에서 체득된 결과였다.

쉬나이더는 그의 교회론에서 교회는 “성화의 장소”이며 “비밀스러운 공간”³¹⁾이며 “역사의 비밀”³²⁾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영적 몸으로서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했다. 세상을 뚫고 나갈 하나님의 나라(Basileia)의 능력이 잠재해 있는 곳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회는 “지옥의 사자들과 화해할 수 없는 투쟁”³³⁾ 가운데 처해 있고 이를 수행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역사의 큰 길잡이”³⁴⁾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는다.”³⁵⁾

4. 기독교 실존주의

베르겐그룬의 소설 「독재자와 심판」은 동시대의 사회심리 현상을 기독교실존의 눈으로 보려 했던 작품이다. 나치시대를 지배했던 심리 현상은 불안과 공포였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중세시대 수도승의 한 살인 사건을 다룸으로서 사회에 불안과 공포가 어떻게 발생하여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카사노라는 중세 도시국가(Stadtstaat)에 안젤리코라는 수도승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도시의

31) R. Schneider: Das Unzerstörbare, GW.Bd.9, Frankfurt/M. 1977, S.123.

32) R. Schneider: Verhüllter Tag, GW.Bd.10, Frankfurt/M.1978, S.131.

33) R. Schneider: Das Unzerstörbare, S.122.

34) Ebd., S.125.

35) R. Schneider: Verhüllter Tag, S.170.

지배자인 독재자는 그의 권력을 동원하여 이 살인사건을 3일 안에 해결하라고 추궁한다. 갑자기 도시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는 모두가 의심을 받게 되었고 각기 알리바이를 세우려고 이기적인 입장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이 도시에 불어오는 바람은 상징적으로 서술되어 이 바람의 영향으로 도시민들은 거세게 불어닥치는 불안을 암지했다. 서로 의심하게 되어 급기야 사회는 붕괴 직전으로 치닫는데, 이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고백함으로써 단락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스페로네라는 이름의 사나이는 자신을 속죄양으로 희생함으로써 불신 사회에 대한 극복을 이루려 하였다. 그의 행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에서 기인했다. 신적 권위를 누리려 했던 독재자는 자신이 범죄자였음을 고백하며 도시는 다시 평화를 되찾는다는 내용이다.

작가는 먼저 소설의 전체구조를 유혹(Versuchung)이라는 성경 주제에서 세운다. 지배자는 권력의 남용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Gottähnlichsein-wollen) 유혹에, 피지배자는 쉽게 시험 당하는 상황의 유혹에 인간 존재의 약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 유혹의 원인으로서 작가는 성서의 원죄(Ursünde)를 지적한다. 원죄와 타락, 그것이 지배자나 피지배자의 유혹의 원인이 된 것이다. 살인사건 자체가 이미 죄였지만 상호간의 불신임, 그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사회 붕괴는 죄의 결과로 자명한 것이었다.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와 인간 존재의 실존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가는 그 해결점으로 그리스도의 희생(Opfertod Christi)을 생각한다. 서로 무죄임을 주장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공포사회 속에서 인간과 사회를 구하는 길은 누군가 먼저 희생을 각오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행한 희생의 죽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Versöhnung)를 준비한 것과 같은 과정이 역시 나치로 인하여 파괴된 사회에 필요하다고 작가는 본 것이다. 이 화해를 통하여 구원(Erlösung)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포와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의 평화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복이 가

능하다는 제안이었다. 여기에서 펼쳐지는 실존의 구조로서 작가는 소설의 배후에다 성경적인 인류의 원죄, 타락, 그 결과로서의 불안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며, 극복의 방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을 그 모델로 제시한다.

5. 기독교 윤리

기독교 작가들은 실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신앙의 실천이라고 보았다. 위의 소설 「독재자와 심판」에서 문제의 해결점은 한 평범한 사나이 스페로네라는 사람의 행동에서 던져졌다. 그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잔악한 행동을 잔악한 복수심으로 대해서는 안됩니다.”³⁶⁾ 그가 이루려고 했던 행동은 당시의 시대악을 행동으로 저지하려 했던 본회퍼의 “그리스도 제자의 길”(Nachfolge, 1937)³⁷⁾을 연상시킨다. 스페로네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대목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³⁸⁾ 기독교인의 신앙행동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면 스페로네는 나치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한 모델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 했던 작가의 문학적인 대답이었다. 작중 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토록 채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자들은

36) W. Bergengruen: Der Großtyrann und das Gericht, Zürich 1971, S.223.

37) 본회퍼의 시점은, 당시 기독교인과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부자유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나. 그 길은 곧 해방이자 기쁨이기 때문이다. Vgl. D. Bonhoeffer: Nachfolge, hrsg. von M. Kuske und I. Tödt, München 1989.

38) W. Bergengruen: aaO., S.263.

그의 삶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이루셨는지 그 사역을 행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기뻐하신 뜻으로 남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신 것같이 말입니다.”³⁹⁾

쉬나이더의 소설 『칼 5세 앞의 라스 카자스』(Las Casas vor Karl V.)는 나치의 유대인 핍박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작품이다. 작품의 무대는 16세기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선교와 군인들의 잔인한 인디안 정책에 있다. 스페인은 왕권신수설을 세우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자신들의 행하는 정치는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여겼다. 인디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어서 개종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름없다는 종족주의 이론(Rassismus) 하에 무자비한 방법으로 개종시키거나 세례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혹독한 고문과 처형을 가했다. 카를릭 신부였던 라스 카자스는 인디언들의 비참한 모습을 체험하고 돌아와 스페인 왕정에 탄원을 한다. “하늘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지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의로운 왕이 있어야 합니다.”⁴⁰⁾ 그의 주장이었다. 칼 5세와 그의 측근들은 스페인의 정치를 옹호하지만 라스 카자스는 스페인이 폐정을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점점 하나님의 세계가 사라져 간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사상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며 인간을 불경스런 행동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⁴¹⁾ 그의 시대에 대한 간언은 다음과 같았다. “양심, 진리의 법 아래에 있는 양심이 그것(스페인의 잔인한 인디안정책)에 항거하게 합니다.”⁴²⁾

쉬나이더는 이 작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신앙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39) Ebd., S.281.

40) R. Schneider: Las Casas vor Karl V., S.125.

41) Ebd., S.233.

42) Ebd.

창조의 자연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인간을 살인하는 행위는 그것이 신앙고백에 관한 일이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개종은 인내함으로 유도해야지 억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기독교인의 양심(Gewissen)이라는 데에 기원을 둔다. 양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인간에게 주신 마음인데 이것은 결정이라는 갈림길에 있는 것과 같다. 인간이 양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를 포기할 때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도덕적인 타락은 양심의 부패를 그 원인으로 본다. 라스 카자스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곳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사탄의 소굴이 됩니다.”⁴³⁾ 선교를 앞세워 인디언을 정복하고자 했던 자칭 기독교왕국 스페인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용기 있었던 이유는 주인공의 사상이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Kreuzweg)을 따르려는 신앙의 그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라스 카자스는 죄와 사탄의 권력이 패배하고야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찾는다. 그리스도의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 그것이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양심이라는 신학이었다.

IV. 기독교 문학의 사명

이 장에서는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 문학의 시대적 사명에 몇 가지 귀납적인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다.

1. 대중 조작으로부터 언어 보존

나치시대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하여 사상과 표현을 조작(Manipulation)하는 일이었다. 제3제국의 국민계몽/선전부

43) Ebd.

장관이었던 Goebbels는 맹목적인 우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당시의 문명의 이기였던 라디오를 십분 활용하여 국민의 모든 정신문화를 장악하려 하였다. 이 때 희생의 대상이 된 것이 언어였다. 나치는 언어를 신화적인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 안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연결짓는 한 도구로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언어는 “우리 시대의 투쟁도구”⁴⁴⁾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언어정책은 사상정책이었고 나치가 주장하는 아리안-게르만 민족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고유한 언어를 회복하는 길은 “민족의 聖物”(Das Volksheiligtum)⁴⁵⁾을 되찾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속에는 문화 계발이 목적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파괴하여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려는 계획이 배후에 있었다.

기독교 작가들은 소위 노예의 언어(Sklavensprache)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베르겐그뤼은 그 결과로 “보수사상”(Konservative Gesinnung)⁴⁶⁾을 고수하였으며 쉬되더는 자신의 시어의 특징인 “고전적인 전통”(klassische Tradition)⁴⁷⁾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베르겐그뤼은 그 목적이 “실존의 영존하고 변하지 않는 힘(종교적인: 필자주)에 대하여 그를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하여”⁴⁸⁾라고 고백하였다. 나치가 기존의 사상과 언어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변용, 도치시킴에 대하여 기독교 문학은 “양심의 책입, 자유”⁴⁹⁾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인간과 역사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제자의 길에서 긍정되는 그리스도의 편재성”⁵⁰⁾을 증거해야 한다는 이론을 폈

44) Vgl. Jahrbuch der Deutschen Sprache, 1.Jg/1941, hrsg. von einer Arbeitsgemeinschaft unter Leitung von Werner Schulze, Leipzig 1941, S.7.

45) Ebd., S.14.

46) W. Bergengruen: Dichtergehäuse, S.122.

47) Vgl. K. Berger: Die Dichtung R.S.Schröders. 1954. S.25 ff.

48) W. Bergengruen: aaO., S.123.

49) R. Schneider: Das Unzerstörbare, S.429.

다. 슈나이더는 자신의 문학행위가 나치시대에 “종교적인 의미의 위생 병 역할”(religiöser Sanitätsdienst)을 하였다고 말한다.⁵¹⁾

2. 기독교 신앙의 고수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시대의 기독교 문학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말론, 기독교, 교회론 등의 신앙의 기본 내용을 문학적으로 다루었다. 그것은 기독교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나가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신화적으로 변용되거나 왜곡되었고,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에서 국민의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이비 종교의 주장과 다를 바 없이 둔갑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작가들은 신학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성서에 기본을 둔 문학적 상상력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었고 그 결과 바른 신앙을 고수하려는 의지의 편에 서게 된 것이다. 나치가 자신들의 혁명을 종교개혁을 모방하여 “독일의 신앙운동”(Deutsche Glaubensbewegung)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보면 기독교 문학이 신앙적인 주제들을 바로 표현, 문학으로 견지한 공헌을 지나칠 수 없다.

그 다음 단계로는 기독교 사상의 적용의 면으로서 작품에 융해되어 있는 실존주의, 윤리에 대한 것이다. 본회퍼는 이 시대의 인간 실존과 윤리의 불가분성에 관하여 피력하였는데 - “한 개인이 윤리적으로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허구일 뿐이다⁵²⁾ - 이 점은 기독교 작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대의 기독교 문학은 문학의 예술적인 가치와 미학적인 면에서보다도 급한 시대적 요청인 윤리, 도덕적

50) Ebd., S.432.

51) R. Schneider: GW.Bd.3, S.460.

52) D. Bonhoeffer: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E. Bethge, Bd.3, München 1966, S.456.

인 가치판단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영적 카운셀링

문학의 기능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부터 이해되어온 것이 있다면 예술의 정화작용(Katarsis)이다. 이는 작품의 미학적인 구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효과는 크지만 나치시대의 기독교 문학의 경우 미학구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앙적인 효과에 더 종속적이었다. 나치시대의 기독교 문학이 공통적으로 나타낸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나치의 사상에 동조할 수 없는 독자들에게 영적인 도움(Seelsorgerliche Hilfe)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용어는 작가들에게 “위로”(Der Trost)라는 말로 압축되어졌다. 평신도 설교자라는 직분을 지닌 쉬뢰더는 문학의 위로의 기능을 성경에서 유출하였다.⁵³⁾ 이사야 40:1, 시편 103:5, 로마서 8:18을 인용한 그는 위로야말로 기독교 문학이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작가의 본분” 또는 “그 직무의 성격”이라고 표현하였다.⁵⁴⁾ 베르겐그루엔은 “역사-교육적이며 문학적인 의도”⁵⁵⁾를 잊지 않았다고 서술하면서 “작가의 언어가 주는 위로에의 요구”⁵⁶⁾를 강조하였다. “이 시대에 말해진 언어는 위로의, 격려의 언어이며, 공포에 대한 거부 의 언어이기도 하였다.”⁵⁷⁾ “위로하려는 의지는 결코 빈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안으로 인해 떨고 있는 인간 영혼을 부추겨주는 엄청난 노력이었다. 대혼란으로부터 희생자들을 탈출시키려는 노력이었다.”⁵⁸⁾ 베르겐

53) Vgl. R. A. Schröder: Die Aufsätze und Reden, GW.Bd.3, Berlin/Frankfurt/M. 1952, S.40-56.

54) Ebd.

55) W. Bergengruen: Schreibtischerinnerung, 2.Aufl. München, 1961, S.106.

56) W. Bergengruen: Der Dichtergehäuse, S.151.

57) Ebd., S.129.

그웬은 이상과 같이 말하면서 쉬나이더의 작품을 “최암흑의 시대에 드러난 위로의 상징”⁵⁹⁾이라고 하였고, “당신의 소네트는 큰 위로의 容器와 같다”⁶⁰⁾고 편지에 썼다. 개신교 신학자였던 Hans Asmussen은 1935년 당시의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영적 카운셀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여 신앙인들이 어떠한 신앙적이며 정신적인 곤경에 있었는가를 반증해 주었다.⁶¹⁾ 기독교 문학은 작품 수용(Rezeption)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V. 맺는말

문학의 본질을 논할 때 역사라는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독교 문학의 사명을 거론할 때에도 시대 배경을 제외한다면 그 이론은 때로 현실 감각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 방법이 결과를 낳는다는 전제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기독교 문학의 사명에 대한 접근 방법과 결과가 다를 수는 있으나, 여러가지 다양한 결론은 기독교 문학의 범위나 위상이 그만큼 넓다는 증거이다. 본 논고가 추구한 국가사회주의 시대의 기독교 문학은 평범한 시대의 문학이 아니었다. 이 시대는 삶과 죽음이 같은 자리에 처해 있어서 문학 행위가 사치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했던 시대이다. 총을 들고 저항할 수도 없던, 그렇다고 나치의 사상에 동조할 수도 없던 시대의 기독교 작가들은 차라리 신앙이 없었더라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조금 수월했을 수도 있다. 적어도 나치의 왜곡하는 신앙에 대한 갈등은 없었을테니

58) Ebd., S.144.

59) Briefwechsel: Bergengruen und Schneider, hrsg. von N. Luise Hackeleberger-Bergengruen, Freiburg/Berlin/Wien 1966, S.9.

60) Ebd., S.52.

61) Vgl. H. Asmussen: Die Seelsorge. Ein praktisches Handbuch über Seelsorge und Seelenführung, 4.Aufl. München 1937, S.IX-XVI.

까 말이다. 이 시대의 기독교 작가가 돋보이는 이유는 이중의 고통을 인내하였다는 데에 있다.

나치시대의 기독교 문학은 검열을 피하여 글을 발표해야 했었으므로 문체면에서 역사의 알레고리(Allegorie)나 비유(Metapher)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거기에는 신앙적인 글을 발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굽히지 않는 시대의 진실을 밝히려 하였다. 그들은 기독교 교의내용인 신론, 기독교론, 종말론, 교회론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공헌 외에도, 기독교 사상의 실천분야인 실존의 극복, 윤리가치의 설정들을 문학으로 전달하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독자들에게 진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독교 작가들의 예에서 본 것처럼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문학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성경말씀과 신학사상의 문학적 형상화이며 재해석에 참여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기독교 문학의 사명이 드러난다. 기독교 문학은 교의를 다루어야 하는 의무나 필요는 없지만 진리를 피할 수 없다는 면에서 자연히 그 내용을 만나게 된다. 일차적으로 기독교 문학은 성경진리를 수용하는 사명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시대 상황에 요구되는 가치를 기독교문학은 외면할 수 없다. 독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작품의 주제가 기독교 문학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것은 윤리라는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작가의 다음과 같은 테제는 기독교 문학의 사명을 위한 좋은 본보기이다.

베르겐그루엔: “기독교 문학은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ewige Ordnung)를 열어 보여준다.”⁶²⁾

클레퍼: “기독교 문학은 성경 해석(Bibelexegese)이다.”⁶³⁾

쉬나이다: “기독교 문학은 계시된 분(Geoffenbarter: 예수

62) W. Bergengruen: Privilegien des Dichters, Zürich 1957, S.67.

63) J. Klepper: Unter dem Schatten deiner Flügel, S.21.

그리스도, 필자주)에 대한 섬김이다.”⁶⁴⁾

쉬뢰더: “기독교 문학에는 선포자와 같은 직분 (Predigeramt)
이 있다.”⁶⁵⁾

64) R. Schneider: Das Unzerstörbare, S.11.

65) R. A. Schröder: Predigt, GW.Bd.8, Frankfurt/M. 1965, S.11.